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배선영*, 조남주*, 박선자*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a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Siblings

Bae, Seon-Young*, Cho, Nam-Ju*, Park, Sun-Ja*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ivision of Health, Se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가족의 비 장애형제자매가 장애아동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6개 기관의 협력을 받아 총 110명의 비 장애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비 장애 형제자매의 일반적 특성, 수용적 지지적 태도, 가족탄력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 장애 형제자매의 긍정적 태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t-검정, ANOVA를 실시하였고, 가족탄력성이 비 장애 형제자매의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검정을 위해 AMOS18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 형제자매의 긍정적 태도와 가족탄력성은 신념체계와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의 하부 영역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탄력성의 전체 설명량은 50%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 구성원이 협력적 노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형제의 긍정적 태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장애아동, 비 장애 형제자매, 가족탄력성, 장애아동 부모, 가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a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non-disabled siblings.

For this purpose, a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110 siblings with disabled childr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questionnaire,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non-disability sibling's general characteristics, be receptive attitude, consisted of family resilience,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by SPSS 18.0. Structural equation was used for black AMOS18.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family resilie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a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non-disabled siblings. 2.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find out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the positive attitude of non-disabled siblings, family resil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factors, which 50%, 50% explanatory power. In conclusion, these results reinforce the important of considering family context as a contributor to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a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non-disabled siblings, so it could be suggested that family resilience needs to be improve.

Key Words : children with disabilities, non-disabled siblings, family resilienc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mily

Received 2 July 2013, Revised 24 July 2013
Accepted 20 Sept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ja(Seonam University)
Email: sjgod920@nate.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전환점인 동시에 시련이 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 가구수는 2,519,241명이며 그중 20세 미만 장애 가구수는 94,392명이다[1]. 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장애아의 출산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어려움과 저항을 가져다준다.

장애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일반적인 출산과 양육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게 되며[2], 장애아동의 양육 스트레스는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 아동의 사회적 역기능적인 행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한다. 사회적 지지가 많은 사회일수록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도움을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처음 이 용어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완충할 수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용어로서 소개 되었다[3]. 이웃, 교육, 친인척 등 돌봄과 사랑의 사회적 지지망은 부모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4].

가족의 역할은 장애아동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진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망으로서 기능을 하면 장애아동에게서 가족은 삶의 주요한 사건들에 영향을 받는 가족 기능체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5]. 그 중 가족 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서 가정내 구성원끼리 접촉 빈도 등을 나타낸다. 가족이 위기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에서 변화에 직면하여 혼란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이나, 차원, 속성 등을 나타낸다[6]. 즉 가족 탄력성은 가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 가족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하는 자질이며, 가족의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탄성의 특성을 갖는다[7]

장애아동을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 장애아동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장애아동이 비 장애 형제 자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성숙과 인도적 차원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 부정적 측면에서는 비 장애 형제 자매의 퇴행, 싸움, 거짓말, 도벽, 신경질 등의 문제 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의 모방을 보인 수 있다[9].

일반적인 가정내에서도 형제 자매는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장애아동에게는 사회적 제도의 보호보다 비 장애 형제, 자매의 지지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탄력성이 장애아동과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부모의 배경이 비장애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가정의 비 장애 형제, 자매가 장애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애아동 가정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가족 환경적 특성, 가족탄력성을 알아본다.

둘째,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비 장애 형제자매가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가족탄력성의 요인들이 비 장애 형제, 자매가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태도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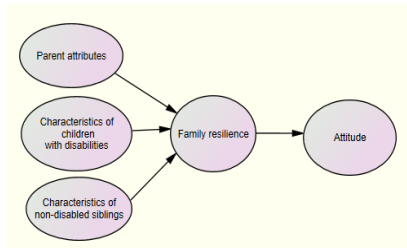
3.1 연구대상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 대상은 장애아동 가정의 비 장애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한달 간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복지관, 재활센터 및 병원을 포함하여 총 8군데 기관을 선정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다. 협조 요청에 응답한 6군데 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비 장애 형제 자매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장애아동의 비 장애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회수된 설문지 144부 중 불 성실히 응답한 설문지를 34부를 제외한 총 1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가정의 부모의 특성, 장애아동의 특성, 비장애형제자매의 특성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장애아동 가정의 가족탄력성이 비장애형제자매들이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의 상관성을 보고자 한다.



[Fig. 1] The Research Model

3.3 연구도구

가정내 배경정보와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 14문항과 장애아동과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관계정도를 알아보는 수용적, 지지적 태도 10문항, 가족탄력성의 하부요인인 신념체계 10문항, 조직패턴 10문항, 의사소통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비 장애 형제의 행동 평정 척도(Schaeffer Sibling Behavior Rating Scale)는 Schaeffer & Edgerton(1979)이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 형제의 행동을 어머니가 측정하도록 고안한 것으로, 수용, 적대, 지지, 당황의 4영역의 2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신뢰도는 .93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최차숙(2002)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척도 중 10문항을 비 장애 형제, 자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1].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h's alpha값은 .92였다.

가족탄력성은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념체계는 Yuker 등이 제작한 Attitude Toward Disabled People(ATDP)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2]. 신뢰도는 .831이다. 조직패턴은 Olson 등이 개발한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도구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FACES-III에서 응집성 영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13], McCubbin 등에 의해 고안된 Family Inventory of Resource for management(FIPM)을 김미옥(2001)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문항 중에 5문항을 비 장애 형제, 자매에게 적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직패턴의 하위요인으로는 역할안정성, 응집력, 가족자원이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22이다. 의사소통과정은 Epstein 등이 개발한 가족기능평가 척도 중 김미옥(2001)이 재구성한 11문항의 척도 중 10문항을 사용했다[14]. 의사소통과정의 하위요인으로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서반응이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11이다.

3.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사용하였다. 비 장애 형제, 자매, 장애아동 및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비 장애 형제, 장애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 장애아동과 비 장애 형제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t-test사용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 형제, 자매의 태도가 가족 탄력성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 구성요인이 장애아동과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타당도와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AMOS 18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Table 1>과 같다.

먼저 장애아동의 형제들의 성별은 남자 형제가 58명(38.7%), 여자 형제가 52명(34.7%)이며, 장애아동의 성별은 남자아동이 73명(48.7%), 여자아동이 35명(23.3%)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형제들은 11-14세 아동이 94명(62.7), 15세이상 형제자매가 16명(10.7)이며, 장애아동은 7-10세 51명(34%), 11-14세아동이 27명(18%), 15세이상이 17명(11.3)이었다. 출생순위를 보면

장애아동 형제 자매들은 첫째가 64명(42.7%), 둘째가 35명(23.3%), 셋째가 6명(4%), 넷째이상 5명(3.3%)이며, 장애아동과의 관계에서는 형이나 누나가 74명(49.3%), 동생 36명(24%)이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on-disabled siblings	disabled with Children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frequency (%)	The frequency (%)	The frequency (%)
Gender	Male	58(38.7)	73(48.7)	-
	Female	52(34.7)	35(23.3)	-
Age (Grade)	3-6 years	-	15(10.0)	-
	7-10 years	-	51(34.0)	-
	11-14 years	94(62.7)	27(18.0)	-
	More than 15 years	16(10.7)	17(11.3)	-
Birth Order	First	64(42.7)	-	-
	second	35(23.3)	-	-
	third	6(4.0)	-	-
	fourth or more	5(3.3)	-	-
relationship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older brother(older sister)	74(49.3)	-	-
	little sister	36(24.0)	-	-
Type of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ies	-	74(49.3)	-
	Intellectual disabilities	-	13(8.7)	-
	Autistic	-	23(15.3)	-
the degree of disability	1 grade	-	57(38.0)	-
	2 grade	-	29(19.3)	-
	3 grade	-	24(16.0)	-
Agencies use	Disabled	-	64(42.7)	-
	Welfare Center	-	-	-
	Special Child Care Center	-	15(10.0)	-
Economic level	Hospital	-	31(20.7)	-
	Upper	-	-	16(10.7)
	Middle	-	-	78(52.0)
Religion	Lower	-	-	16(10.7)
	Christian	-	-	30(20.0)
	Buddhism	-	-	20(13.3)
	Catholicism	-	-	10(6.7)
	Other	-	-	50(33.3)
Father Age	31-40	-	-	16(10.7)
	41-50	-	-	67(44.7)
	51-60	-	-	22(14.7)
	61years old	-	-	4(2.7)

Father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	-	4(2.7)
	High School	-	-	58(38.7)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	-	48(32.0)
Mother Age	31-40	-	-	27(18.0)
	41-50	-	-	66(44.0)
	51-60	-	-	15(10.0)
Mother Education	61 years old	-	-	2(1.3)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	-	6(4.0)
	High School	-	-	57(38.0)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	-	47(31.3)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74명(49.3%)로 가장 많았고, 정신지체 13명(8.7%), 자폐성장애 23명(15.3%), 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장애등급은 1급이 57명(38%), 2급 29명(19.3%), 3급 24명(16%)이며,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이용기관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 64명(42.7%), 특수어린이집 15명(10%), 병원 31명(20.7%)이며,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상 16명(10.7%), 중 78명(52%), 하 16명(10.7%)였다. 장애아동 가정의 종교는 기독교 30명(20%), 불교20명(13.3%), 천주교 10명(6.7%), 기타 50명(33.3%)이며, 아버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1~40세 16명(10.7%) 41~50세 67명(44.7%), 51~60세 22명(14.7%), 61세이상 4명(2.7%),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 4명(2.7%), 고졸 4명(2.7%), 대졸 이상 48명(3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는 31~40세 27명(18%), 41~50세 66명(44%), 51~60세 15명(10%), 61세이상 2명(1.3%)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6명(4.0%), 고졸 57명(38%), 대졸이상 47명(31.3%)이었다.

4.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 자매간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모의 학력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on the formation of supportive relationships accommodate differences

General Characteristics	N	M	SD	F/t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6	3.0167	1.192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57	3.8789	.669	5.440**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47	4.0085	.649	

*p<.05 **p<.01 ***p<.001

아동의 일반적 배경에서 모의 학력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 자매간의 관계형성에 $t = 5.440(p < .001^{***})$ 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 자매 관계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Family resilience nondisabl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be reseptive attitude and coo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0
Attitude	1									
Disability attitude	.318*	1								
Family control	.534*	.602*	1							
Family strengths	.482*	.540*	.509*	1						
Cohesion	.605*	.461*	.631*	.549*	1					
Stable role	.649*	.361*	.620*	.460*	.743*	1				
Family support communication	.597*	.366*	.638*	.418*	.712*	.764*	1			
Emotional reactions	.440*	.332*	.644*	.361*	.631*	.629*	.621*	1		
Problem solving	.439*	.369*	.537*	.306*	.535*	.630*	.545*	.717*	1	
	.473*	.356*	.519*	.334*	.551*	.633*	.498*	.650*	.822*	1

*p<.05 **p<.01 ***p<.001

장애아동과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관계형성에 대한 가족탄력성은 신념체계와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의 하부영역들을 다시 세분화하여 상관관계 살펴보았다. 신념체계

의 하부요인을 보며 장애태도($r = .318, p < .01$), 가족통제($r = .534, p < .001$), 가족강점($r = .482, p < .0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패턴의 하부요인을 보며 응집력($r = .605, p < .001$), 역할안정($r = .649, p < .001$), 가족지원($r = .597, p < .001$), 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의 하부요인을 보며 의사소통($r = .440, p < .001$), 정서반응($r = .439, p < .001$), 문제해결($r = .473, p < .001$)이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비 장애 형제, 자매들이 장애아동에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 자매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 자매 간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 탄력성의 하위 변인이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비장애 형제, 자매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 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 변수인 수용적 지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의 요약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family resilience relationships impact on the child's sibl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t	B	Beta	t	B	Beta	t
Family Belief system	Disability attitude	-.122	-.124	-1.197	-.082	-.083	-.883	-.095	-.096	-1.006
	Family control	.356	.445	4.379***	.098	.123	1.115	.123	.154	1.316
	Family strengths	.359	.323	3.345**	.213	.191	2.092*	.206	.185	1.992*
Family Cohesion	Cohesion				.118	.130	1.089	.138	.153	1.239
	Stable role				.246	.314	2.563*	.223	.285	2.168*
Family Support communication	Family support				.122	.137	1.148	.148	.166	1.368
	Emotional reactions									
Family Problem solving	Emotional reactions									
	Problem solving									
								.126	.144	1.116
R ²			.354			.496			.507	
Adjust R ²			.335			.466			.462	
F			19.333***			16.876***			11.411***	

*p<.05 **p<.01 ***p<.001

모델 1을 살펴보면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에서 장애태도, 가족 통제감, 가족의 강점이 형제, 자매들이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35%(R2 =.354, F=19.33, p<.001***)를 설명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모델로 파악되었다. 특히 하위유형 중에서 가족통제감(t=4.379, p<.01**), 가족강점(t=3.349, p<.001***)이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를 살펴보면 가족탄력성의 조직패턴을 모델 1에 추가한 분석모델로 조직패턴의 하위 영역인 응집력, 역할 안정성, 가족자원 3가지를 추가하였다. 조직패턴이 추가된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형제간의 태도 변량을 49%(R2=.496, F=16.876, p<.001***)로 설명하고 있다. 모델 2에서 하위 유형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 강점(t=2.092, p<.05*), 역할 안정성(t=2.563, p<.05*)성이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다.

모델 3을 보면 가족탄력성의 모델 2에 가족탄력성의 의사소통을 추가한 모델으로,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으로 의사소통, 정서반응, 문제해결이 있다. 모델 3의 설명력은 50.7%(R2=.507, F=11.41, p<.001***)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분석모델에서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 강점(t=1.992, p<.05*), 역할안정성(t=2.168, p<.05*)로 가족강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 내 역할 안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애아동을 대하는 형제 자매간의 수용적 지지적 태도가 좋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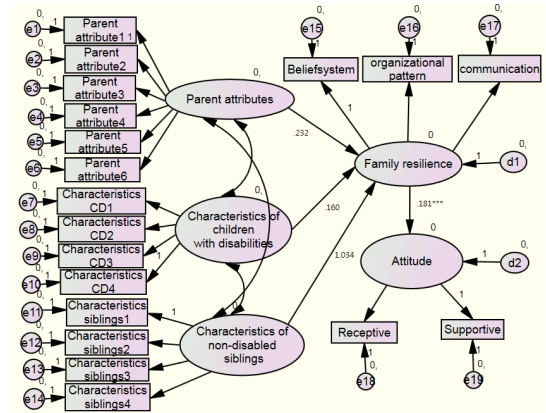
4.5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

본 연구 모형을 검정한 결과 X^2/g 값은 285.965,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지만 CMIN/DF 값은 1.97로 기준치에 부합되는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RMSEA 값은 수용가능한 수치이며, TLI 값은 .675, CFI 값은 .752로 기준치를 상회함으로써, 본 연구의 모델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Table 5> Model Fit

	$X^2(p)$	CMIN/df	RMSEA	TLI	CFI
Fit indices	p>.05	below 2	.05-0.1 : acceptable	above .9	above .9
Research Model	285.965 (df=143, P=.000)	1.97	.094	.675	.752

장애아동가정의 가족 탄력성은 비장애형제 자매들이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 β .181, p=.000***).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5.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학력은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긍정적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애아동 가정 내에서 접촉하는 시간이 어머니가 더 많으며[15],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현선[16]과 도성화[17]는 장애아동 가정 내 증재자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둘째, 가족탄력성의 하부 요인들과 비 장애 형제 자매가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상관성 분석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형제, 자매간의 관계형성과 수용하고 지지하는 긍정적 태도 형성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반응이 원활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족 탄력성과 사회적 역량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역량사이에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18],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일상적인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19].

셋째, 가족탄력성의 하부요인에서 신념체계가 가지고 있는 설명력은 35%, 신념체계와 조직패턴은 49%, 신념체계와 조직패턴, 의사소통을 합한 최종분석모형에서는 50%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장애 아동과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 구성원이 협력적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경로가 장애아동과 비 장애 형제, 자매간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1에서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는 다른 하부요인에 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장애를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장애 태도($t=-1.197$), 통제감($t=4.379^{***}$), 가족의 강점($t=3.345^{**}$)의 중에서도 통제감과 가족의 강점은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감은 우리가족을 자랑스러워함, 한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높을수록 가족 내 긍정적 가치관과 자신감을 공유한다. 가족의 강점은 가족내 협동력과 문제 해결력이 좋을수록 그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을때 강점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념체계와 조직패턴을 더한 모델 2에서는 가족탄력성의 조직패턴은 가족의 강점($t=2.092^*$)과 역할안정성($t=2.563^*$)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역할 안정성은 가족내 기능에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그 역할을 어떻게 수용하고 수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가족내 역할은 가족이 정서적 공감과 공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난다.

신념체계와 조직패턴, 의사소통을 더한 모델 3에서는 신념체계의 하부요인인 가족의 강점과 조직패턴의 하부요인인 역할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종분석모델에서는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과 비 장애 형제, 자매간의 수용적, 지지적 관계형성에 50%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장애아동을 형제, 자매를 두고 있는 비 장애 형제, 자매들이 장애 형제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긍정적 태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와 정서 공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긍정적 유대관계와 정서 공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내에서 어

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둘째, 본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습관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아동의 형제 자매간의 관계 형성에도 가족 내 긍정적 가족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가족탄력성은 장애 아동 가정의 형제 자매 관계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을 강화 시키는 여러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아동이 이 사회에서 잘 성장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 장애 형제자매는 중요한 자원이다. 부모의 사후 비 장애 형제 자매의 관계형성과 탄력성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with disability population situation a survey, 2011.
- [2] W. K. Seo, D. Y. Kim, The Effects of the Maternal Anxiety,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well-being on Parenting stres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6, NO. 1, pp. 121-136, 2013.
- [3] Cassel, J. Psychosocial processes and Stress : Thoretical form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Vol. 4, No. 3, pp. 471-482, 1974.
- [4] I. O. Kim, W. R. Lee, A Study on Bringing-Up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7, NO. 1, pp. 101-121, 2011.
- [5] I. S. Cho, The Study on Parent's Role in Transition Education Plann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Vol. 11, No. 3, pp. 193-211, 2009.
- [6] McCubbin, H. I., McCubbin, M. A., Typologies

-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Vol. 37, No. 3, pp.247-254, 1988.
- [7] Hawley, D. R., Dehaan, L.,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es*, Vol. 35, No. 3, pp. 283-298, 1998.
- [8] M. S. P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iblings with Disabilities's Self-Esteem and Resilience of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ster of social work. dissertation.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05.
- [9] J. Y.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upon the attitude of normal sibling toward mentally handicapped sibling - Focused on normal siblings stress -. Master of social work. dissertation.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10] Shaeffer, E., Edgerton, M., Sibling behavior to handicapped child inventory. Charlott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79.
- [11] C. S. Choi,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Sibling's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Handicapped. Master of social work.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2.
- [12] Yunker., Block, YOUNG,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dapted from th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Scale-. N.Y. Human Resources Center, 1970.
- [13] Olson, D. H., 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Scales. M.N.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14] M. O. Kim,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Doctor of social work.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15] C. S. Lee, Disabled with children role of parents. *Korea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10, No. 1, pp. 25-32, 1995.
- [16] H. S. Jun, A Perceptions of Parents for Students with The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of the Role Awareness and The Rol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 55, No. 1, pp. 1-18, 2012.
- [17] S. W. Do, A Study on Role Awareness and Role Performance among Parents for Early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2, No. 1, pp. 51-69, 2010.
- [18] E. H. Kim, S. K. Y,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5, No. 3, pp. 145-171, 2012.
- [19] M. K. Kim, A Study on Daily Life Conflict and Daily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f Intermarried Korean Men-.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 17, No. 3, pp. 173-186, 2012.

배 선 영(Bae, Seon-Young)



- 2013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박사과정 중
- 2010년 10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신경계 작업치료, 신경과학, 작업과학
- E-Mail : na7096@nate.com

조 남 주(Cho, Nam-Ju)



- 2012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박사과정 중
- 2009년 3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작업치료, 질환별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 E-Mail : kachinj@nate.com

박 선 자(Park, Sun-Ja)



- 2008년 8월 : 대구대학교 이학 석사 졸업
- 2011년 9월 ~ 2013년 8월 : 전남대학교 특수교육 박사수료
- 2010년 9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작업치료, 감각통합, 뇌과학, 아동발달, 장애아동가족
- E-Mail : sjgod920@naver.com